“우크라이나에 평화를”…상월결사 反戰평화순례

3월 23일 대흥사서 순례, 우크라이나인 등 5백여 대중 참여

해남 대흥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회주 자승 스님 필두로 9.6km행선
한마음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부처님전에 전쟁종식 기원꽃 올려
우크라이나인 “불자 마음에 감동”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우크라인들이 함께 순례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기들고 평화기원하는 순례단.

“맑고 밝은 빛의 부처님, 우리는 함께 하는 인류애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위로하겠나이다. 저들의 고통 곁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인류평화의 길을 굳게 믿어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분별과 차별이 없도록 일심발원합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넘어 세계평화를 위해 상월결사 사부대중이 다시 길을 나섰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3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상월결사 대흥사 평화순례’를 봉행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이번 순례에는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불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대흥사 동국선원 선덕 정찬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영길 前 민주당 대표, 김영대 민주당 최고위원, 명현관 해남군수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날 순례에는 학생과 일반인, 교민 등 우크라이나인 3명과 체코인 1명, 러시아계 우즈베키스탄 출신 법현 스님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댄서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고국의 전쟁소식을 접한 알레나 비츠코 씨(25)는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폴타바 지역 출신인 알레나 씨는 또 다른 참가자인 류다 씨와 함께 3월 22일 봉은사템플스테이를 하고, 이날 순례에 동참했다.

알레나 씨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있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스님들의 배려로 순례 전날에는 명상을 하며 걱정의 마음도 많이 내려놓게 됐다”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의 응원과 지원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반 알렉산드라 씨(20, 동국대 컴퓨터공학과)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남부 마리우폴 출신으로 순례에 참석했다. 고려인이기도 한 알렉산드라 씨는 “할머니가 계속 마리우폴에 계시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알렉산드라 씨는 “기독교인인데도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가족의 건강과 전쟁 종식을 빌었다”고 털어놨다.

같은 학과 동기인 스니자나 씨(20, 동국대 컴퓨터공학과)는 “체코로 가족들이 피난을 간 상태”라며 “연일 이어지는 공습 소식에 하루하루가 불안했다. 오늘 응원해주는 분들, 특히 스님들과 함께 걸으니 먼 나라에 와 있지만 외롭지 않고, 마음이 다소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순례단은 삼산면 구림리 인조잔디장에 집결, 대흥사까지 왕복 약 9.6km를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함께 걸었다. 대흥사에서는 부처님 전에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전쟁종식을 기원하는 헌화를 하고 사부대중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향에서는 이들에게 불자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전달됐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우리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극심한 고통과 걱정 또한 지혜롭게 살펴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오늘 신심과 원력으로 함께하는 평화순례는 이러한 의미가 넓게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둔산 대흥사는 역사적으로 호국의 기운이 서린 곳”이라며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세계평화는 맞닿아 있다. 오늘의 순례로 호국의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평화도 함께 기원하자”고 발원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4월 27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2차 평화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교원, ‘어린이법회 의식곡’ 영상 제작

어린이법회 눈높이 맞춰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전법중심도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법회 의식곡’(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사홍서원) 영상을 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찰에서 온라인 어린이 법회 비율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포교원은 ‘찬불가 율동 영상’에 이어, ‘어린이 법회 의식곡’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영상은 온라인 법회 뿐만 아니라 대면 법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영상제작은 ‘좋은벗풍경소리’와 함께 진행했으며, 삼귀의·사홍서원은 기존 음원에 일러스트와 목탁소리를 더하고, 우리말 반야심경은 조계사 어린이들의 합송을 녹음했다. 제작된 ‘어린이 법회의식곡’은 포교원 공식 유튜브에 공개되며, 키즈 붓다(www.kidsbuddha.org)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직지〉에 담긴 가르침에 프랑스 열광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으로만 알려져 있던 ‘직지심체요절’의 내용을 접한 프랑스인들이 선불교 정수와 그 사상적 깊이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직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_활자의 시간여행’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방영되자, 현지인들은 1시간 30여 분간 질문을 이어가며 〈직지〉와 선불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3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직지_활자의 시간여행’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며 현지 반응을 사진과 함께 본지에 제공했다. 이날 시사회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프랑스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자리로, 프랑스 탐험가 협회·지리학 협회본부 대강당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백만원력·포교기금 쾌척

3월 22일, 2천만 원 전달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활성화 단체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과 포교를 위해 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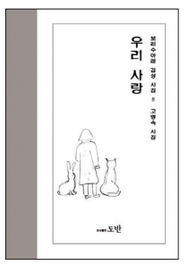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결집불사기금 1000만 원과 포교기금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생명나눔이 전달한 포교기금은 포교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27년을 이어오는 동안 20만 명의 후원회원이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며 “백혈병과 소아암 등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통해 매년 5~60명의 생명을 살려왔다. 또 극한 상황에 몰린 환자들을 선정, 한달에 한 번 치료비를 전달하는 등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 간 대면 활동에 소홀했지만, 모금은 잘 되고 있다”면서 “종단 중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포교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금 쾌척의 목적을 설명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일상이 멈추고 어려운 시기가 이어졌지만 큰스님의 원력 덕분에 이뤄낸 성과”라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큰일을 해달라고”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임은호 기자

뇌병변장애 고명숙 시인 ‘우리사랑’ 출간

보리수아래 8번째 감성 시집
사랑하는 삶에 대한 시 62편



코로나19 속에서도 장애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해온 장애불자 모임 ‘보리수아래’가 감성시집 시리즈 8번째 시집 ‘우리 사랑’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의 주인공은 뇌병변장애인 고명숙 시인.

‘우리 사랑’은 가족과 이웃, 타인, 자연 속 모든 생명을 사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시 62편이 담겼다.

고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뭇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시집의 제목은 시인이 키우는 고양이와 토끼의 이름이기도 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마음을 이해하는 삶 속에서 모두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료상담가이자 작사가이기도 한 고명숙 시인은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 시낭송, 한국장애인문학협회 동화집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시인은 “장애인으로서 힘든 조건에도 어느 불제자들 못지않게 깊고 진실한 불심을 가진 고마운 분들을 만나 소통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며 “보리수아래 장애불자들의 문학사랑, 예술사랑, 불교사랑의 길을 따라 다른 생명을 위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아래는 2020년 2월 뇌병변장애인 성인제 시인의 시집을 시작으로 이경남, 김영관, 홍현승, 이순애, 성희철, 장효성, 윤정열 등 장애시인들의 시집 7권과 수필집 1권을 펴낸 바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6~20일 보리수아래 감성시집과 수필집에 실린 작품을 이민형 한학자 겸 서예가가 글씨 독후감으로 표현한 ‘훈장님이 글씨로 쓴 보리수아래 감성시전’을 준비하고 있다. 02)959-2611 임은호 기자

